

AUTHOR 이광호

TITLE 개혁교회와 개혁주의적 목회

-실천적 개혁주의 목회-

IN 진리와 학문의 세계

5권 (가을, 2001): 35-57.

5. 맷는 말

이상으로 스가라서 12장 10절의 'הִנֵּה־נָא כִּי־לֹא־יְבָרַח 구문을 본문비평의 시각에서, 각 단어의 의미를 의미론적 및 행태-통사적 시각에서, 그리고 전체 텍스트 속에서 언어·단위의 기능과 역할을 파악하는 텍스트언어학의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의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 ① 마소라본문의 독법이 아닌 다른 독법으로 읽을 근거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마소라본문을 그대로 받는데 문법적·언어학적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마소라 본문을 언어분석의 자료로 삼는다.
- ② 10절 메세지의 화자인 “나”를 바라보는 자들’과 종속 관계절 속의 “살상무기로 젤럼을 당한 이”를 찌른 자를’은 동일하다. 12장 전체의 문맥에서 볼 때 “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주된 참여자인 어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들은 ‘여호와의 호혜를 받는 참여자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다.

이 연구에서 주제 본문에 관련된 여러 신학적인 주장들이나 논쟁들은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았다. 이 언어학적인 기초분석의 결과에 따라 신학이 고려되는 것이 바른 순서가 아닐까? ●

개혁교회와 개혁주의적 목회

- 실천적 개혁주의 목회 -

이광호(목사, 철학박사)

1) 서론
2) 본론 교회와 목회
1) 개혁주의 교회
2) 개혁주의 목회
3) 결론

1. 서론

정의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천신학이란 무엇인가?

- ① 실천신학은 신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 ② 실천신학은 기독교적 실천방법이나 목회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하는가?

- ③ 실천신학은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성경적 비평학인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의 ①②를 실천신학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실천신학이란 '기독교적 실천에 대한 성경적 비평학'이라 정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천신학이란 '실천적 이론신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올바른 실천신학이 있지 않은 한 참된 기독교적 실천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목회학이란 '목회'를 개발하고 더 잘하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지배의 목회'에 대한 성경적 비평학이라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회학은 목회적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목회에 대한 성경적 비평학으로서 역시 이론신학의 한 분야이다. 즉, 기독교적 실천과 실천신학은 서로 다르며, 목회와 목회학은 서로 다르다. 이는 정치와 정치학이 서로 다르며, 정치는 실천적이지만 정치학은 이론적인 것과도 같다.

성경신학과 실천신학의 관계는 어떠한가? 성경적 이론의 뒷받침이 없는 목회학이란 있을 수 없으며 목회학은 항상 성경신학을 배경으로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

등은 목회학 혹은 실천신학을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실천신학은 항상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의 검증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학문 분야가 더 중요하나 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 마치 교회에서 직분처럼 나름대로의 연구분야가 있을 때름이다. 그리고 실천신학은 목회적 실천을 비롯한 기독교의 모든 실천사상들을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그러한 검증을 통해 끊임없이 상호 교감해야만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적 목회'라는 말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개혁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서 '개혁주의'라는 말을 역사적 개혁주의에 엄마이지 않고 기본적으로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에 그 의미를 둔다. 따라서 개혁주의의 근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sola scriptura'에서 개혁주의의 의미를 출발한다.

2. 본론: 교회와 목회

1) 개혁주의 교회

교회는 유기적 공동체이다. 유기적 공동체란 사람의 몸이나 가족에서의 구성원처럼 서로 떨어져서 이해될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 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 모르는 관계라면 유기적이라 할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몸의 모든 자체가 상호 연결되어 기능하고 있듯이 교회도 그러한 것이다(고전 12장). 이런 의미에서 수천 명 이상이 되는 대형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 대부분의 우리가 대형교회를 궁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경 험 때문일 것이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칭해지고 있다. 이는 정치적 개념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있었던 특수한 정치적 대의기 관이 곧 에클레시아였던 것이다. 이는 일반 학교교육에서는 ‘민회’(民會)라 부른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주님의 교육’인 에클레시아이다. 그가 피로 갚주고 사신, 민화와 구별되는 ‘교회’(敎會)인 것이다. 그러므로 참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이 반영됨이 없이 운 영되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바 ‘개혁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터의 해석을 단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의

대부분의 장로교회에서는 개혁주의를 지향함을 내세우지만 과연 한국의 장로교가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

도의 문제이다. 현재의 한국 장로교는 전통적 장로교의 기준에 서 많이 벗어나 있다.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실질적 말씀선포와 성례 및 권징의 이해에 있어서 장로교의 가르침을 많이 떠나있기 때문이다.

개혁교회의 가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따름이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의도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교회내에 서 긍정적 가치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설령 종교적 좋은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오염된 것일 수밖에 없다. 이는 칼빈의 사상 가운데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인간의 전적 무능’의 가르침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 개혁교회에는 ‘울타리’의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울타리에 나있는 ‘문’을 지쳐야 하며(요10장), 그 문을 여닫는 키/열쇠에 의존해야 한다(마6:18). 그 울타리 안에서 말씀선포와 성례, 및 권징 사역이 풀임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세례의 의미는 절대로 중요하다. 세례는 인간의 자의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행해지는 거룩한 의례이다. 이 가르침을 벗어나면 이미 개혁주의적 교회라 할 수 없다. 세례가 울타리 및 문의 기능을 한다면 말씀선포는 그 안에서의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권징사역은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의 의미]

1) ‘하나님께서 피로 갚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갚주고 사신 그 귀한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힘부로 할 수 없다. 교사인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의 검증이 없이 교회에서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이사라 벌집보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교회’라는 말씀을 땅놓 히 하셨다. 주님께서는 자기 이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나/우리의 교회’라 할 수 있는 권한자를 두시지 않

은 것이다.

2) 개혁주의 교회는 고백공동체이며 단순한 교제공동체가 아님

교회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다. 교회의 기초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는 베드로의 고백이다. 이 고백은 사실상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고백이므로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고백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일

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 그를 경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성도들의 교제는 미땅히 있어야 할 그에 따른 부수적 결실이라 할 수 있다.

3)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공동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담(울타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명한 열쇠가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열쇠를 네게 주리니 (마 16:18-19). 여기에서 열쇠가 언급된 것은 곧 담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문의 열쇠를 통하여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요한복음 10장 참조). 중세의 신학자 Ursinus는 마태복음 16장의 '천국 열쇠들'이란 두 개의 열쇠를 의미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예는 열쇠와 닫는 열쇠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 열쇠는 아무나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만일 집주인이나 그 집주인이 임무를 부여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이다. 나아가 만일 그 열쇠를

도둑이나 강도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안될 일이다.

천국을 보증하는 교회를 이해한다면, 그 열쇠는 유자적자에 의해 분명하게 사용되어야만 한다. 만일 그 열쇠를 강도나 도둑에게 넘겨버리면 그곳은 강도나 도둑의 소굴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 중 하나가 '우리'와 '자희'라는 말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와 저희는 남인 것이다.

[교회의 구조]

1) 성경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는 어떠한 인간의 통치도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 가운데서 통치적 기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성도들을 통치할 수 없다.

2) 교회의 조직은 피라미드식 구조물이 아니다.

목사, 장로, 집사, 일반 평신도로 구성된 교회 조직이 마치 피라미드식의 구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통치적 개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한국교회의 조직은 <목사 - 장로(들) - 집사(들) - 일반성도들>이라는 피라미드식 상하구조 속에 두고 있으며 그 옆에 성가대, 대학부, 전도회 등 다양한 조직들을 두고 있다. 이는 인간인 성도들 상호간에 통치하고 관리하는 개념이 다분히 들어있는 형태이다.

3) 교회의 조직은 오히려 가정구조와 더욱 가깝다.

우리는 혼자 가정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속하는 분야로 해

석한다. 국가나 다른 여타의 모든 단체가 역사적 신물로서의 구조로 이해 할 수 있다면 가정은 자연발생적 구조를 가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인위적 구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자연발생적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종교생활을 하는 단체가 아니며, 주님에 대한 고백이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섬기는 공동체이다.

2) 개혁주의 목회

목회라는 말은 목사(pastor)와 관련된 것이다. 목사는 우선 <말씀>과 <교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한다. 여기서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교회>란 '하나님의 끌린 교회'를 의미한다. 이 말들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위의 둘 모두가 역사적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인 그 기준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목사가 이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면 올바른 목회적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 '목회'라는 말에는 과연 '통치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

* 목회는 행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인사관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에는 행정이나 인사관리가 없으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고 하는 직임을 통해 유지가 된다. 교회도 이와 흡사하다)

* 목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앞에 선포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는 것이다.

1) 목회란 무엇인가

(1) 목회는 통치적 행위가 아님

목사라는 직분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목사는 교회의 교사일 때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 선포하는 직분이다. 어떤 경우에도 목사는 통치자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 통치란 리더십과는 다르다. 이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리더십을 가지긴 하지만 통치권을 가지지 않는 것과 비유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대교회들 가운데는 목사를 통치적 기능으로 오해하는 경우 많다. 대표적인 예가 여자목사제도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교회들에서 여자목사제도를 도입하는 근본이유는 폐미니즘에서 출발한다. 즉, 목사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통치적 지위로 생각하여 그 높은 지위에 왜 남자만 올라 가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이다.

(2) 교회는 목회하는 '일터'가 아니라 '삶터'임

목사는 노동한 만큼, 혹은 능력만큼 월급을 받는 자가 아니다. 목회가 노동이 되고 교회가 일터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목회자의 노동적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서로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이웃일 따름이다. 교회는 목회자의 일터가 아니며 삶터이다. 나아가 교회의 일차적 관심은 일이 아니다. 선교활동이나 구제활동 등이 교회의 일차적 목적일 수 없다. 필자는 여기에서 '선교활동'이라는 말과 '구제활동'이라는 말을 '선교' 및 '구제'와 구분하

여 사용한다. '선교'와 '구제'는 건강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자발적인 결실이며, 그것을 위한 목적적 사업은 아닌 것이다. 선교와 구제는 건강한 '교회의 삶'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애써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 목사가 특별한 방법을 통한 스킬을 개발해 성도들을 훈련시키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로 통해 자연스럽게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이는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올바르게 잘 하게 되면 굳이 자녀들에게 실행을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이다.

(3) 목회에는 성공/실패라는 말이 없음

목회에 성공하려는 욕망을 가지는 것은 종교적 자기 욕심이다.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유명인 사이거나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하므로 성공적이며, 다른 어떤 사람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평생동안 소수의 성도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해서 그것을 실패라 할 수 없다. 나아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성도들은 멀 일한 사람이거나 실패한 것이고 오래 살아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은 더욱 성공한 사람이 라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세례요한이나 스데반 같은 성도는 불행한 방법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사도바울이나 베드로 등은 적당하게 세상을 살았으나 교회사적 전승에 의하면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아 말로가 좋지 않았다. 사도요한은 아흔살이 넘는 오랜 세월을 살며 주님의 사역에 참여 했으나 그 또한 교통스런 말년을 보냈다. 이렇듯이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세상에서 주의 직분을 감당한 해의 길이가 상이하고

생애동안 다같이 화려한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더 성공적으로 일했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목회에 있어서도 참된 목회나 아니면 그릇된 목회나 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2) 일(ministry)은 하나님께 속함

우리는 하나님의 'ministry'(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를 잘 이해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ministry)을 목회자가 행하는 일(ministry)과 혼동해서는 곤란하다. 목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참여하는 교사(목사)들의 순종함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종일 따름이다. 우리는 일꾼이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참여자>라는 뜻이다. 마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것이다. 일꾼이 만일 주인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벌받을 일이 다. 모든 일의 계획은 주인이 하신다. 좋은 주인이 계획하신 만큼 순종할 때이며 종이 마치 주인인 양 계획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일(ministry)에 말씀의 가로침 안에서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이다. "씨 뿌리는 비유"라 듣지,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추수하라"는 주님의 가로침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여 참여하라는 뜻이며 우리의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한 예를 들어보자. 요즘 현대 가정에 있어서 '가사노동'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그 말의 쓰임새가 필요할 때는 단지 잘못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다. 건강하고 건전한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이라는 말이 불필요하며 사실상 그런 개념이 없다. 가정에서는 상호 봉사하는 개념만 있을 때를

이다. 이처럼 교회에서도 노동이라는 개념은 불필요하며 그리스 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봉사 즉 직분의 역할이 있을 때 때문이다.

3) 목회의 모든 원리는 성경에서 찾아져야 함

우리에게는 신약성경 중 특히 목회서신이라 불리우는 서신이 있어서 그 서신을 목회의 근본으로 삼는다. 목회학이란 목회를 잘하기 위해 여러 목회현장을 분석해 본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학이란 도리어 목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성경말씀을 통해 비평을 함으로써 참된 목회를 추구해 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서류를 탄 교회성장이나 방법론이 목회학의 모델이 되어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형편이다. 목회는 인간의 아이디어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며, 목회적 경험이나 즉 체험 목회전통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런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모든 목회는 성경말씀, 더욱 구체적으로는 목회서신의 가르침과 충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잘못된 목회적 실천들을 찾아내 버림으로써 참된 개혁주의 목회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목회자로서의 목사의 직분이 행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장로, 집사의 직분이 행해지는 범주가 교회안인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회밖을 향한 구제사업이나 선교활동 등도 역시 교회 안의 활동이 밖으로 넘쳐나는 것일 뿐 교회 밖에서의 사역은 아니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가

정에서는 아버지이지만 집밖에 나가면 아버지가 아니라 사회인이다. 이처럼 목사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며 교회 밖에서는 그 직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목사의 직분 혹은 목회자로서의 기능을 교회 밖에서 행사하려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선한 목회자로서 목사]

1) 목사는 하나님의 종(doulos)

목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설명을 하여 둘로스(doulos), 즉 하나님의 노예이다. 그는 주인인 하나님에 시키는 일 이외에 어떠한 독립된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없는 노예, 즉 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종’은 결코 아니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여기서 말하는 종, 파이스(pais)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종’일 따름이다.

만일 목사가 자신의 ‘종’(doulos)의 위치를 자칫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파이스(pais)를 자칭하고 나선다면 엄청난 이단적 발상일 수밖에 없다.

2)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정지기

목사는 성도들을 통치하는자가 아니며 교회의 상층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한 위치에서 존경받을 자가 아니다. 물론 일반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존경과는 다른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서 받는 존경은 아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교회의 소임을 받은 자

이다. 이는 자기열심으로 인한 쟁취나 취득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가 말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함으로써 얻게 되는 존경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그가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가르칠 뿐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천국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 목사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

(1)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개혁교회에서 목사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칼빈은 목사 한 사람이 전체 회중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목사는 교회 가운데 교사로서의 거룩한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목사의 가르침이 전 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목사의 통치권이나 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하며 가르칠 권한이 있으며, 자기 경험적 판단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아닌 목사 자신의 말을 듣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2) 목사와 축복권

목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목사가 교회 가운데서 축복을 하는 것 역시 목사에게 주어진 자율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목사가 축복을 하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이 언약한 바

'복'을 주의 품된 교회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마치 축복하는 목사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면 이는 잘못이다. 만일 그렇게 되면 목사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듯한 잘못된 권위를 소유하게 될 위험에 빠질 때를이다.

(3) 성도들에 대한 목사의 자세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각 성도들을 효용에 따른 평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교회내에는 많이 배운자와 그렇지 못한자,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 재능이 있는자와 그렇지 못한자 등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사는 그들 가운데 어떤자들은 교회를 위해 더 필요한 자이며 다른 어떤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가져서는 안된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러한 사고를 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고 물러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람'보다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기독교적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4) 목사와 교회 제정

한국교회에서는 흔히 목사가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명예', '여자', '돈'이라고 한다. 그 세 가지만 조심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 부끄러운 우리의 수준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목사라면 그런 것에 집념할 하등

의 아무런 이유가 없다. 혹, 그런 것들로부터의 유혹이 있다해도 건강한 목사라면 회개와 더불어 속히 죄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하여튼, 다수의 목사들은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제정에 대해서는 그 문제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목사는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개인의 연보액수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으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알아서도 안된다. 나아가 교회내의 다른 사람들은, 즉 제정집사를 조차도 개인연보에 대한 현황을 알 필요가 없다.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바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현대교회를 가운데 다수는 각 개인 성도들의 연보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위험천만의 발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연보를 더 많이 거둬 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회의 기본을 뒤흔드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칫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덜 필요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목회자가, 이 세상에서 복음사역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찰웃이다. 성경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삶길 수 없다'(마 6:24 참조)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돈을 삼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돈에게 절을하거나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씀에서 얻는 교훈은, 하나님의 능력 보다 돈의 위력을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불신행위라는 점이다.

(2) 설교는 목사의 경험이나 사상을 펼침으로써 성도들을 설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설교는 연습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신학교 등에서 하는 '설교연습' 시간이란 복장, 제스チャー, 전달방법 등을 주로 연습해 보는 시간이 아니다. 설교연습이란 여러 사람들의 설교를 성경말씀을 기초로 하여 분석·비판함으로써 비성경적인 설교내용들을 지적하여 올바른 설교를 배워가는 것이다.

(3) 개혁주의 교회에서의 설교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을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존 낄스(John Knox)는 '설교'에 있어서 목사는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읽고 그 말씀의 의미하는 바를 교회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보았다(Stewart Gill, "설교자로서의 존 낄스", 1999년, 개혁교회사학회, 강의안, p.7. 참조). 설교를 잘하는 목번가가 되려는 것은 위험하다. 이것은 순전히 명예욕의 소산일 것이다. 목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전달하는 자가 되도록 에쳐야 한다.

(4) 설교는 노동이 아니다.

설교가 과연 노동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설교는 목사의 노동행위가 아니다. 목사의 설교는 예배를 구성하는 한 은사적 부분이다. 이는 '강의'가 노동행위인 것과는 꼭 대조적이다.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대가가 요구되고 지불될 수 있는 성질이지만 노동행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계산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수의 목사들이 설교를 한 대가로 사례를 받는 것은 잘못이다. 부흥강사가 짐화를 인도하고 나서 대가를 받는 것이나 이웃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 금전을 지금 받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는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 (설교를 맡은 성도나 기도, 찬송 등의 순서를 맡은 성도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때 피아노 반주자나 찬양대, 저희자도 역시 자기 재능을 서비스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이다). 함께 예배에 참여한 대가로 어떤 형태로든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결코 안된다.

5) 성례를 집행하는 자로서의 목사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목사의 특권인 것은 아니다. 성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다. 목사만이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불순함을 막기 위해 서이다.

우리 시대에 세례가 갑자기 남발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군에서 한꺼번에 수 천명에게 베풀어지는 교회의 보증없는 무분별한 세례는 개혁주의적 가르침을 완전히 벗어난 처사이다. 초대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았으며 한국교회의 초창기에도 그렇지 않았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례인 세례와 성찬은 목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며 목사의 전적인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장로교에는 그 일을 위해 장로회가 있다. 목사는 주님께서 세우신 제도에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침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성례를 베푸는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실천된다면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

6) 권징사역 감독자로서의 목사

- * 개혁주의 교회의 목사는 권징사역에 있어서 진지하고 엄격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한다. 교회의 교사로 세움을 받은 목사가 이를 소홀히 하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하게 된다. 성도들이 마음상해 할까에 대한 관심이 일치적 배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이 일치적임을 깨달아야 한다.

(1) 교회의 순결유지와 권징사역

교회는 신랑되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순결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외양과 조작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 권징과 사랑

권징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다수의 성도가 잘못을 한 다른 성도를 처벌하는 것이 권징이 아니라 교회가 참 사랑을 베푸는 방편이 곧 권징이다. 그러므로 권징의 기준은 개인의 경험적 판단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못한 성도'에게 벌을 주는 것이 권징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권징의 목적은 해당 성도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이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이다.

(3) 권징과 경각심

권징의 이행에는 교육목적이 있다. 말씀을 벗어난 삶은 그릇된 것임을 끊임없이 성도들 상호간에 나누는 것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늘 죄된 경험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으로 살피며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의무를 가진다.

(4) 권징의 절차

권징의 절차는 마태복음 18: 15- 17에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정치적/행정적 절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을 기초로 한 삶의 한 방편이다. 권징의 절차가 정치적 의미로 해석이 되면 교회의 의사를 벗어난 체도적 경직성에 머무를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사랑의 권면이 삶을 통한 실천으로 이어질 때 그 의미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5) 목사와 심방

목사의 성도들에 대한 심방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사가 성도의 가정을 심방하는 것은 축복을 해주기 위해 서거나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심방을 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세상살이에 짜든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도 아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심방하는 것은 권징지역의 일환이다.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 격려하기도 하며, 세례받을 당시의 고백을 잊고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려는 경향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한 교제를 통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약속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는 가운데 교회의 모습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론

펼쳐는 개혁주의 목회는 생목회(生牧會)여야 한다고 믿는다. 즉 목사가 교회 가운데서 노동하며 일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곧 목회라 믿는 것이다. 성도의 수가 얼마나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주님께서 말하신 주의 백성의 무리가 있으면 저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계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교사의 삶이 곧 목회

인 것이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목회자가 자기 노력(노동)에 의해 확보한 자들이 아니다.

성경은 교사되기를 좋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약3:1). 잘못된 교사, 목회자에게는 장차 더욱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 성취에 매우 절다. 그 때문에는 잘못된 통치에 대한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목사가 존재하며 목회가 있는 이유는 목사 혹은 목사 그룹을 위한 것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 서이다. 예수님께서는 참목자는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줄 아는 자라고 하셨다. 양떼를 위한 목자인 것이다.

만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양떼를 치는 목자라면 심 군 목자라고 성경은 못박고 있다(요 10: 11, 12). 오늘날 교회와 목사의 관계는 어떤가? 이것은 누구를 헛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리를 살피기 위함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목사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를 대형화하기 위해 교인을 이용할 수 없으며 더 큰 교회당 건물을 짓기 위해 교인들에게 연보를 강요할 수 없다. 자기의 목회 아이디어에 교인들을 이용한다면 이는 개혁주의 교회에서 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어떤 목적을 달성할 의도로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는 전체주의적 교회라 할 수밖에 없다. 즉 '전체'라고 표상되는 어떤 가상의 목적을 정해 두고 교인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만일 어떤 목사가 자신의 목회성공을 위해 교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개혁주의적 목회일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주님과 교인들을 위해 자신의 유형·무형의 모

든 유익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개혁주의적 목회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예로 가정에서 가장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처럼 개혁주의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로치신 바 목회자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인 목사가 '성공'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천국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가 아닌가? 참된 목회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목회를 검증 받아야 한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종교적 성취를 위한 긴구'에 앞서 '남마다 죽어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❶

[이 글은 2000. 3. 24. '국제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있는 필자의 강연입니다.]